

데이빗리 목사

고린도전후서반

교재



제 1 장 고린도전후서 개론

1. 저자

고린도전서의 첫 구절에 편지의 저자가 바울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어서 바울이 저자라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고전 1:1). 이에 대한 반론 제기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2. 기록 시기와 장소

고린도전서는 대략 주후 54년경 에베소에서 기록된 것으로 알려집니다(고전 16:8-9). 고린도후서는 그 다음 해인 주후 55년경에 쓰여졌다고 보여집니다.

3. 고린도 전서의 목적

고린도교회 내에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 영향으로 고린도 도시는 부도덕한 성문화와 우상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교회에서 적잖은 영향을 주게 되었는데 교회 내에 바울과

[고전 16:8]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고전 16:9]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아불로와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또한 고린도교회에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은사자들 간의 대립이 심했습니다. 잘못된 은사자들의 성경해석으로 인해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은 편지를 써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쓴 까닭은 디도가 고린도교회로부터 가져온 고무적인 내용 때문입니다. 고린도교회는 바울의 권고대로 교회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바울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에 대해 권고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교회가 구제하는 일을 소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은사가 많은 교회이지만 오히려 구제하는 것을 소홀히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전서와는 그 형식부터 판이합니다. 고린도전서는 객관적이에요 실제적이지만 고린도후서는 주관적이에요 개인적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는 비교적 온화하고 차분하지만 고린도후서는 바울의 근심과 안도와 기쁨과 확고한 의지등이 나타나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고린도교회의 형편을 드러내고 있지만 고린도후서에서는 바울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고린도



고린도는 아가야(Achaia)지역의 수도였습니다. 바울 당시 인구가 60만 명이나 되었던 대도시였습니다. 원래 고린도는 기원전 146년에 무미우스(Mummius)에 의해 파괴되었지만 기원전 44년(대략 80년 후)에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Julius Caesar)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상업 도시로 번창했지만 영적으로 볼 때 매우 무질서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해상무역에 매우 적합한 입지조건을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상인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무질서하고 음란한 도시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시민들은 다신교를 숭배하였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매춘이 성행했는데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는 천명의 젊은 여사제들이 여러 사람들과 합법적인 매춘행위를 벌였습니다. 고린도는 무역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상대로 매춘행위를 통해 많은 수입을 벌여드렸습니다.

고린도가 상업중심지로 커져감에 따라 세계 각처에서 몰려오는 상인들로 인해 세계의 사치품이 고린도로 유입하였고 이곳은 사치와 방탕한 도시로 변화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더럽고 추악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4. 고린도전서 배경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헬라 본토에서 페로폰네소스반도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서 육로와 수로의 상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

했습니다.

고린도에는 우상숭배가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당시 그곳에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것이 성행했는데 천명이 넘는 신전창녀를 둘 정도였습니다. 고린도는 여러 인종이 모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지역에서 가져온 우상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무역이 성행함으로 인해 높은 수입으로 인해 사치가 심했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바울은 글로에를 통해 고린도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린도교회에서도 교회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울의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는 고린도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적어도 세번 방문했으며 적어도 세번 이상의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첫번째 서신은 상실되었지만(고전 5:9) 3차 선교여행 중 에베소에서 고린도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세번째 편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인데 아마도 고린도전서를 쓴 여러 주일의 기간이 경과되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썼고 고린도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썼습니다. 어찌면 고린도전서와

[고전 5:9]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후서 사이에 또 다른 편지를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고린도교회 문제점

- 1) 분파 문제: 새로운 신자가 복음을 듣고서 받아 드리면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누가 가르쳤냐에 따라 성도가 가르치는 사람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목사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구분되었습니다(고전 1:12). 어찌 그리스도파가 다른 지도자파와 함께 나뉘려야 하겠습니까? 어찌 바울파와 게바파와 아볼로파가 예수님파와 견줄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분파문제였습니다.
- 2) 은사 문제: 고린도교회는 은사자가 많았습니다. 은사를 가진 성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령충만한 교회임을 뜻합니다. 하지만 은사자들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주된 요인은 누가 더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로 싸움이 생긴 것입니다.
- 3) 음행 문제: 고린도교회는 지역사회의

[고전 1:12] 이는 다름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에는 음행이 성행했습니다. 이러한 음행의 죄악이 교회 내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린도교회 내에 음행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 4) 우상 문제: 고린도교회는 여러 인종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고린도교회가 이런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비록 교회에 다닐지라도 저들의 삶은 우상 숭배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제2장 교회 내의 주요문제들

1.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 한 뜻이 되라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저들 가운데 분파가 생겨 서로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고전 1:10-12).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큰 일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입니다. 나는 형제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더욱 섬기고 있습니까? 나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그룹제안) 당파싸움으로 분쟁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형제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교회에도 이러한 분파가 있습니까? 당신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2. 바울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을 전한 것에 감사했습니다(고전

[고전 1:10]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전 1:11]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고전 1:12] 이는 다름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1:13-17).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제자가 되기 보다는 온전히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인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를 양성해야지 나의 제자를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성도로 하여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보다는 나의 제자를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감사하게 여겼던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누군가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혹 당신은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삼기보다는 당신의 제자로 삼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3.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합니다(고전 1:25). 아무리 사람이 지혜롭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에 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강함을 자랑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의 가진 지혜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말하였을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추

[고전 1:13]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뇨

[고전 1:14]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고전 1:15]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함이라

[고전 1:16] 내가 또한 스테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전 1:17]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전 1:25] 하나님의 미려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 인해 강해지는 것보다 세상에서의 강함을 더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4.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십니다(고전 1:26-31).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입니다. 나는 스스로의 지혜와 강함과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행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당신은 스스로의 지혜나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지만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깨닫게 하셨다고 말하셨습니다(고전 2:9-12). 육으로 사는 자들은 도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 영으로 살아가

[고전 1:26]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고전 1: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고전 1: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고전 1:29]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30]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고전 1: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전 2:9]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2: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11] 사람의 사정을 사람

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은 오직 영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다고 말하였을까요? 당신은 영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비밀들을 깨닫고 있습니까? 당신이 깨달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들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눠봅시다.

6.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으며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고전 2:13-14). 육에 속한 사람은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옳게 생각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신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까?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 (그룹제안) 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도 않고 오히려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성령의 일들'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거부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7.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자

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고전 2: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2: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전 2: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 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 이니라

들이라고 꾸짖었습니다(고전 3:1-4). 이는 저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였기 때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주장을 위해 형제를 미워하고 다툼을 일삼습니다. 나는 나의 주장을 앞세우고 나의 이익을 위해 형제를 미워하며 다투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였을까요? 당신은 육신에 속한 자입니까? 당신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드러난 증거들이 있으면 고백해 봅시다.

8. 바울은 모두가 동역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고전 3:5-11). 바울은 복음을 심은 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사람이지만 오직 복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입니다. 나는 혼자서 일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동역자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팀사역을 하고 있습니까?

9.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공적이 있는데 주님이

[고전 3:1]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전 3:2]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고전 3:3]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고전 3:4]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오

[고전 3:5]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전 3: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니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전 3:7]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고전 3:8]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고전 3:9]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고전 3:10]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오시는 날에 불로 시험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고전 3:12-15). 주님의 불에 의해 태워져 재가 되는 공적은 쓸모가 없으나 그대로 남아 있는 공적만이 하나님의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주님 오시는 날 시험의 불에도 태워지지 않을 공적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우리의 세운 공적이 무엇으로 시험을 받는다 하였습니까? 어떤 공적만이 주님의 시험의 불에도 태워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당신의 세운 공적은 시험의 불에 태워지지 않을 공적이라고 믿습니까?

10. 성경은 우리가 성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고전 3:16-17).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된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멸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 된 몸을 깨끗이 유지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일까요? 당신 안에 성령께서 거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인 당신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당

[고전 3:11] 이 닦아 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전 3:16]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고전 3:17]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신의 몸이 하나님의 보다 깨끗한 성전이 되기 위해 제거해야 할 더러움은 무엇입니까?

11.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였습니다(고전 4:15). 스승은 가르치는 자이지만 아버지는 본이 되는 자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 받으라고 말할수 있는 것은 그가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스승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왜 스승이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말하였을까요? 스승과 아버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스승입니까? 아니면 아버지입니까?

12.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음행이 있는 자가 있음을 한탄하며 왜 그런 자를 쫓아내지 않았느냐고 꾸짖었습니다(고전 5:1-2). 바울이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도록 한 이유는 비록 육신으로는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성도를 책망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들의 영혼이 더욱 비참해질 것입니다. 나는 음행으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지

[고전 4:15]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전 5:1]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전 5:2]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음행을 행하는 자를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명하였을까요? 당신은 음행을 행하는 자입니까? 만일 당신이 음행을 행하는 자이기때문에 교회에서 쫓겨난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어떠한 책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스스로 음행으로부터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13.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서로를 고발하는 행위에 대해 비난하였습니다(고전 6:1-3). 마땅히 성도는 서로 사랑하며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만일 서로간의 문제가 심화될 때에는 교회 내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 형제간에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교회 내에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강하게 비난하였을까요? 교회 내에서 형제간의 다툼을 교회에서 해결하지 아니하고

[고전 6:1]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로 더불어 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고전 6:2]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고전 6:3]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로 고발하는 행위를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그런 자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일 당신이 라면 성도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겠습니까?

14. 바울은 성도간의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로를 고발하지 말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더 낫다고 권고하였습니다(고전 6:6-8). 나는 성도간의 불화가 있을 때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편을 택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성도간의 문제가 있을 때 차라리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였습니까? 당신은 성도간의 문제가 있을 때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까?

15.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하였습니다(고전 6:9-10).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하는 자, 탐욕하는 자, 술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나는 불의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있지는 않지요?

[고전 6:6]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고전 6:7]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전 6:8]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전 6:10] 도적이거나 탐람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 (그룹제안) 바울은 어떠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요소는 무엇입니까?

16. 바울은 세상의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교회 내의 악행한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판하여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권하였습니다(고전 6:12-13). 그러면서 만일 믿는 자 중에서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이는 자와는 도무지 사귀지 말라 명하였습니다. 이는 교회가 보다 정결하고 거룩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위함입니다. 나는 믿는 자 중에서 악행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써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믿는 자 중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며 저들을 내쫓으라 명하였을까요?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7.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하였습니다(고전 6:17).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고전 6:9]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고전 6:10] 도적이나 탐람하는 자나 술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고전 6:11]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고전 6:17]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들이 우리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나는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됨으로 인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당신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습니까?

18.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하였습시다(고전 6:18-20). 이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음행으로 인해 더러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음행으로 인해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왜 음행을 피하라고 말하였을까요? 음행과 성전과의 관계에 대해 대답해 봅시다. 왜 음행을 행할 때 다른 죄보다 더욱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일까요?

[고전 6: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고전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고전 6: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제3장 성도들에게 있는 문제들

1.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는 권고를 하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고전 7:1-5). 서로 분방하지 말 것은 그 일로 인해 마귀에게 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배우자와 분방하지 않으며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잘 지키 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왜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고 권고하였을까요? 바울이 원하는 배우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배우자에 대해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까? 왜 바울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권고하였을까요? 당신 혹 분방하고 있지는 않지요? 그 이유를 대답해 봅시다.

2.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며 배우자에게 본이 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고전 7:12-16).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 본을 보임으로써 그가 믿음을 갖도록 인도하고 있습니까?

[고전 7:1]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고전 7:2]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고전 7:3]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고전 7:4]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고전 7:5]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고전 7:12]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고전 7:13]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 (그룹제안) 왜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버리지 말고 그에게 본이 되라고 하였을까요? 당신은 믿지 않는 배우자가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거룩함을 통해 당신 배우자가 주님께 나아왔습니까?

3. 바울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고전 7:19). 할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의식이었음에도 그렇게 말한 것은 외형적인 형식과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외형적인 형식과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왜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했을까요? 당신 삶 가운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외형적인 형식이나 전통적인 의식이 있습니까? 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보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형식이나 전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까요?

4. 바울은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

[고전 7:14]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고전 7:15] 혹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 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고전 7:16]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는지요

[고전 7:19] 할례 받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도 자유인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 권고하였습니다(고전 7:21-23). 주님께서 우리를 피 값으로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거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며 그렇게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주께서 피 값으로 사신 종으로서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주님의 종이 되는 것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5. 바울은 결혼 한 자와 홀로 있는 자의 차이를 구분했습니다(고전 7:32-34). 결혼 한 자는 배우자를 위해 살기 때문에 주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으나 결혼 하지 않는 자는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만큼 주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길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홀로 있으나 결혼 하였으나 상관없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결혼 한 자가 결혼 하지 않는 자보다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하였을까요? 왜 결혼 하지 않은 자가 결혼 한 자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고전 7:21]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고전 7:22]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고전 7:23]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고전 7:32]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 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도

[고전 7:33]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고전 7:34]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도 시집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것일까요? 바울의 말을 당신에게 적용시켜 볼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6. 바울은 가급적 결혼 하지 말고 홀로 지내는 것이 더욱 좋고 더욱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고전 7:40).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더욱 깊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홀로 지내는 것이 더욱 좋으며 더욱 큰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을까요?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홀로 있는 것이 더욱 좋게 만들고 있습니까?

7.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고전 8:8).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였습니다. 나는 입으로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보다 입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까?

[고전 7:40]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라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전 8:8]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을까요? 왜 주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하셨을까요? 당신의 입에서 나온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함께 나눠 봅시다.

8.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어도 죄가 되지 않지만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면 그것은 주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고전 8:9-13).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취함으로써 그것이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것이라면 자제해야 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마음껏 취하기 보다 그것으로 인해 형제가 실족하지 않는지 주의하며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삶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자유로 인해 형제를 실족케 하는 경우는 무엇일까요? 함께 나눠 봅시다

9. 하나님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명하셨습니다(고전 9:9-10). 이는

[고전 8:9]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고전 8:10]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고전 8:11]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고전 8:12]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고전 8:13]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하나님은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명하셨을까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에 따른 축복을 주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써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10.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취하지 않았습니다(고전 9:12).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 함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취하지 않고 살아갑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참고 취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고전 9:9]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 나

[고전 9:10]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고전 9:12]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사도'라는 말은 요사이 기독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사실 '사도'라는 말은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룩한 단어입니다.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단어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사도'라는 말을 사용할 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으로 몰리기 쉽습니다.

최근에 신사도운동을 하는 교회나 목회자가 많아지면서 사도라는 단어는 거의 외면을 당하는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사도'란 단어는 천주교에서 역사를 따라 사용되어 왔습니다. 천주교의 교황이 예수님의 사도적인 직분을 받아 계승되어져 온다고 저들은 말합니다. 천주교의 1대 교황이 베드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교회의 반석이 될 것 이란 말씀을 들었기때문에 천주교는 베드로를 1대 교황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 하리라."

베드로가 죽은 것은 네로황제 때의 일이니까 기원후 60년 정도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삼게 된 것은 콘스탄틴 황제 때의 일이었으니 기원후 313년 정도때의 일입니다. 베드로가 죽은지 250년도 넘었는데 굳이 베드로를 천주교의 교황으로 삼았던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교회를 세울 권세를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천주교만 '사도'직의 계승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사도'직분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물론교도 그들의 지도자를 가리켜 '사도'라고 칭하고 사도직분이 계승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지방교회는 위치만 나와 위트니스 리를 사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단교단에서 '사도'직분을 잘못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성경에서 언급된 '사도'라는 단어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는데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

"사도"라는 단어(아포스톨로스)는 일반적으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만 사도는 제사장처럼 계승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도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아들이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사도의 계승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도'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언급되고 있는 구절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엡 4:11)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는 교회의 여러 직분들의 질서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 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하는 자와 목사, 그리고 교사와 같은 직분자들이 질서있게 운영 되어져야 함을 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사도에 대해 다시한번 언급하였는데 이 또한 교회의 질서

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전 12: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8]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에베소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도'에 비해 고린도전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도'는 직분보다는 사도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에 대해 더 비중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본문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직분을 담당하는 사람, 둘째는 선지자의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 셋째는 교사직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은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 다음은 은사가 있는 사람, 그 다음은 서로 돕는 구제일을 담당하는 사람, 그 다음은 교회운영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은 각종 방언을 하는 사람"(고전 12:28)으로 구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오늘날 교회도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교사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처럼 사도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또 다른 사람은 구제를 잘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한 지체로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만일 교회가 사도직분을 담당하는 사람만 있으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 모든 사람이 친교만 담당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없으며 모든 사람이 평신도만 되어도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전 12:29]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고전 12: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고전 12: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도들

성경에는 여러 사도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열 두 제자들이 '사도'라는 지칭을 받았습니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눅 6:13] 밝으매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둘을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가롯유다가 죽은 후에 공석인 제자 한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티아가 선택되었을 때 성경은 마티아를 사도라 칭했습니다.

"[행 1:26] 제비 뽑아 마티아를 얻으니 저가 열한 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바울은 그의 기록에서 스스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하였습니다.

"[롬 1:1]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사도'라는 직분이 거의 예수님의 제자와 바울에게 사용되었지만 다른 제자들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떠났던 '바나바'에게도 사도란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행 14:14]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 가서 소리질러." 예수님의 동생은 '야고보'에게도 사도란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갈 1:19]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외에도 '에바브로디도'에게도 '사도'라는 명칭이 붙여졌습니다. "[빌 2:25]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곳에 언급된 '사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성경은 디도 역시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후 8:23]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무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여기서도 '사도'의 헬라어 단어인 <아포스톨로스>가 '사자'로 표기되었습니다.

사도가 되기 위한 조건

첫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따라다녔던 수많은 제자들 중에 오직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사도로 부름을 주셨습니다.

"[막 3:13-14]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은 사람에게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된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갈 1:1]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을 사도로 세우셨다는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행 9:15]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둘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며 그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롯유다가 죽고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 그 조건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행 1:21] 이러하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행 1:22]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바울은 예수님과 생활을 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기때문에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던 것입니다.

"[고전 15: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고전 15: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셋째, 사도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신 후에 저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고 권세를 부여받은 12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었으며 병자를 치유하였습니다.

"[마 10:1]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겸손함을 보이면서 사도는 마땅히 기적을 행하는 자여야 함을 말하였습니다.

"[고후 12:11]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에게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고후 12:12] 사도의 표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사도직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성경은 거짓사도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거짓 사도가 있었음을 말합니다. 성경이 기원후 100년 이내에 씌여진 것임으로 그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 사도가 존재하였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지금도 거짓 사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고후 11:13]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꾀술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 2:2]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계 2:3]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고 거짓 사도가 아닌 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위협하고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언급했듯이 사도라는 직분은 특정한 사도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성격을 띄는 지도자가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사도적인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담임목사입니다. 담임목사가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목사를 교회의 지도자로 기름을 붓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마땅히 담임목사의 말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담임목사를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담임목사의 말에 불순종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담임목사의 말에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자는 곧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눅 10:16]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을 너무 거부감스럽게 느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으니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사도를 세우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마땅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행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바치는 자입니다. 사도는 성도를 온전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키도록 예비된 섬기는 종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가 필요합니다. 샅군 사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짓 사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입니다. 그런 사도가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장성한 믿음의 소유자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엡 4:11]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엡 4:12]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만일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가리켜 사도라 칭하면서 성도들 위에 왕처럼 군림하려 한다면 그는 거짓된 사도가 틀림없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도라면서 당신의 아픔을 함께 나누지도 않고 위장된 사랑으로 당신에게 접근한다면 그를 멀리하십시오. 그는 거짓 사도요 샅군 목자인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교회에 '사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았습니까?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그 사람도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보다 위에 서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의 하인입니까? 당신이 그 사람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종처럼 섬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사도가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께서 세우신 사도는 아닙니다. 어찌면 그 사람

은 어떤 이단적인 교단에서 세워진 사도일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은 당신을 이용하기 위해 사도라고 칭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의 열매를 확인하십시오. 주님께서 거짓 사도를 시험한 것을 잘하였다 칭찬하셨듯이 당신 또한 거짓 사도된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진정한 사도는 주님의 열매가 있지만 거짓 사도는 마귀의 열매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십시오. 당신이 사도입니까? 그렇다면 사도의 일을 하십시오. 하지만 만일 당신이 가르치는 자입니까?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질서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품으신 교회 역시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그 질서에는 사도도 있으며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 언급된 것들을 더하거나 빼지 마십시오. 스스로 더해서 유익될 것이 없고 스스로 빼서 정죄받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11. 바울은 상을 바라보며 주의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할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고전 9:18).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사명이 되어야 하며 그 어떠한 유익함이 없을지라도 값없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상급이 없을지라도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무엇이 그의 상급이었습니까? 당신은 아무런 상급이 없을지라도 최선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당신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고전 9:18]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으로라

12.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하여서 멸망당한 사실을 말하면서 결코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말라고 권하였습니다(고전 10:5-11).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로 멸망을 당했고 음행으로 멸망을 당했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다 멸망 당했고 원망하다 멸망 당한 사실을 예로 들었습니다. 우리도 만약 바울이 예를 들어 언급한 악들을 행한다면 필시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숭배, 음행, 시험, 원망 등의 악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 당했던 과거사를 꺼내면서 저들이 어떤 악을 행하였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멸망했다고 하였습니까? 당신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행했던 악행이 있지는 않습니까?

13.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치 않으십니다(고전 10:13).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할 때에 능히 피할 길을 열어주심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고전 10:5]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고전 10:6]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고전 10:7]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고전 10:8]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고전 10:9]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고전 10:10]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전 10:11]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전 10: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도우신다고 하였습니까? 당신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길을 열어 주셨던 체험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능히 모든 시험을 이겨낼 능력을 주심을 믿습니까?

14. 바울은 성찬을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을 강조하였습니다(고전 10:16-17). 이는 취하는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요 취하는 잔이 그리스도의 보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며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형제요 자매입니다. 나는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이며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가족임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성찬의식 중 떡과 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성찬을 취할 때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취합니까? 실제로 떡을 취할 때 주님과 연합됨을 느끼고 있습니까? 실제로 잔을 취할 때 주님의 보혈을 마시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까?

15.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고전 10:24). 주님께서도 자신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할 때

[고전 10:16]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전 10:17]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고전 10:24]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나의 유익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고했을까요? 당신 주변에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16.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권하셨습니다(고전 10:31).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무엇을 먼저 추구하며 살아갔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전 10: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제 4 장 참된 교회예배

1.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고 하였습니다(고전 11:1). 진정한 목회자는 성 도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성도는 믿지 않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였을까요? 어떻게 바울은 그렇게 당당 하게 "나를 본받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2. 바울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시라고 말하였습니다(고전 11:3). 하나님 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남자는 여자를 위해 죽어야 합니

[고전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고전 11:3]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듯이 여자는 남자의 말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질서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오직 사랑을 통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강압적인 질서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3.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가 된다고 말하였습니다(고전 11:16-19). 그 이유는 저들의 모임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옳다 주장하며 싸우는 행위는 모임을 더럽게 하며 교회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나는 나의 주장만이 옳다 주장하면서 분쟁을 일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해가 된다고 말하였을까요? 혹 당신의 모임은 유

[고전 11:16] 변론하려는 태도를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규례가 없느니라
[고전 11:17]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고전 11:18] 첫째는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대강 믿노니
[고전 11:19] 너희 중에 편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익보다 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임이 유익보다 해가 되게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요?

4. 바울은 분쟁 가운데 있는 사람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분쟁은 죄입니다(고전 11:20-22). 분쟁은 스스로를 더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용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주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온전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어떤 이유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까? 왜 우리는 더러운 상태에서 주의 만찬을 취할 수 없는 것일까요? 당신은 오직 정결과 거룩함으로 주의 만찬을 취하고 있습니까?

5. 주님은 주의 성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고전 11:23-25). 우리가 성찬을 취할 때 주님과 연합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이며 포도주는 주님의 피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성찬을 취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취하는 의미로써 주님을 기념하고 있습니까?

[고전 11:20]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고전 11:21]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이는 시장하고 어떤 이는 취함이라

[고전 11:22]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전 11: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고전 11:24]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고전 11:25]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

▶ (그룹제안) 주님께서 기념하여 행하라 명하신 성찬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정기적으로 주의 성찬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서 성찬을 취하고 있습니까? 성찬을 통해 당신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6. 바울은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성찬을 취하라 권고하였습니다(고전 11:27-29). 주의 몸을 분별하지 않고 성찬을 취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연약함과 질병과 심지어 죽음을 당하는 자가 있하였습니다. 성찬을 형식적으로 하거나 예의바르지 못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손한 행위입니다. 나는 형식적이거나 예의바르지 못하게 성찬을 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게 임한 불행이 성찬을 올바르게 취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것은 아닙니까?
- ▶ (그룹제안) 바울은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지 않을 때 어떠한 형벌이 임한다고 하였습니까? 혹 당신에게 나타난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죽음이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지 않기 때문에 임한 것은 아닙니까? 왜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지 않을 때 이러한 형벌이 임하는 것일까요?

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고전 11:27]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고전 11:28]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고전 11:29]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7. 성령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한 것은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고전 12:7). 성령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은 유익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에 유익함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삶에 유익함을 얻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성령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할 때 어떠한 유익함이 있습니까? 당신이 성령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당신 삶에 어떠한 유익함이 있습니까?

8. 바울은 성령님과 함께 동행할 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하였습니다(고전 12:8-10). 어떤 사람에게서는 지혜의 말씀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는 지식의 말씀이 나타나며 각 사람마다 믿음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은사, 방언은사, 방언통변은사가 나타난다 하였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어떤 은사가 내 삶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말한 성령의 9가지 은사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고전 12:7]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전 12:8]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고전 12:9]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고전 12:10]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9. 바울은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교회도 하나이지만 그 안에 많은 성도가 있다고 비유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고전 12:12-13). 이처럼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여야 합니다. 나는 한 지체로서 교회가 하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교회가 하나로 되어야 함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무엇을 비유로 사용하였습니까? 당신의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까? 당신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하나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10. 바울은 몸이 한 지체이지만 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어서 모든 지체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고전 12:14-21). 우리는 다른 형제가 나와 생각이 맞지 않거나 뜻이 다르다고 미워하거나 비판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른 지체로써 한 몸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 안의 다른 형제를 미워하거나 비판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교회 안에서 모든 형제들이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함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무엇을 비유로 들고 있습니까? 당신

[고전 12: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전 12:13]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고전 12:14]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고전 12: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고전 12: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고전 12:17] 만일 온 몸이 눈이 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고전 12: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각 각 몸에 두셨으니

[고전 12: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고전 12:20] 이제 지체는 많은 나 몸은 하나라

과 생각이 맞지 않거나 뜻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떤 형제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 하나님은 교회에 질서를 세우셨습니다(고전 12:28-31).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서로 돕는 것을 담당하는 자, 각종 방언을 말하는 자는 교회 내에 있어야 할 질서이며 각 사람은 서로 다른 직분이나 은사를 가지고서 질서 안에서 존재해야만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는 어떠한 직분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교회에 질서를 세우셨을까요? 당신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 어떠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에 세워진 질서를 잘 따르고 있습니까?

[고전 12: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고전 12:28]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고전 12:29]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고전 12:30]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고전 12:31]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교회의 질서

성령사역을 행하는 교회는 강력한 교회입니다.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그런데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는 오히려 일반교회보다 더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가요?"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 값지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모일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거나 서로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각자가 제 갈 길로 가는 식의 교회운 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교회는 하나여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대한 다른 해석으로 인해 서로 다른 교단이 생기고 그 교단 안에서도 서로 다른 교파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교회는 사실상 하나의 교회입니다. 별다른 목적이 있어서 하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니 교회도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단이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여야 하며, 교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종교와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마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고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 주님의 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의 몸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전 3:16)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 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곧 성전이며 곧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전 된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는 교회라고 말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 성전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 많은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가리켜 '주님의 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몸'은 모든 성도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엡 1:23)

바울은 교회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주님의 몸'이

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우리 각 성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은 성도들의 상태에 따라 변화가 될 것입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주님의 몸을 만들려고 한다면 모든 성도들이 아름답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성도들이 죄에 빠져 살아가거나 악한 마음을 먹고 살아간다면 주님의 몸은 점점 약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정결과 거룩함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주님의 몸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지체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각 성도는 각자의 기질과 성품과 능력에 따라 몸의 각자 다른 지체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전 12:27)

주님의 몸으로써 모든 성도들이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주님의 몸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시험에 빠져 낙심하게 될 때에 몸의 어느 한 부분에 상처를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아주 빨리 상처 난 부위에 약을 바르고 붕대로 감싸줘야 합니다. 이렇게 가벼운 상처라면 쉽게 그 상처가 치유되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음란 죄에 빠지게 되거나 도박에 빠진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된다면 이것은 몸에 종기가 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 종기가 나면 예전에는 ‘고약’을 붙였습니다. 한 동안 붙인 고약을 떼어 내면 종기의 뿌리가 고약에 달라 붙어 빠져 나옴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엔 몸에 구멍이 뚫히니 뚫려 있기도 합니다. 종기의 뿌리가 뽑아져 나오면 일반 상처처럼 소독을 하고 약을 바른 후 붕대로 감싸주면 곧 낫습니다.

이처럼 종기의 뿌리를 뽑아 내는 것은 음란 죄나 도박죄같이 심각한 죄를 짓는 성도들이 자신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며 상한 심령으로 주님의 용서함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듯 죄를 회개할 수 있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교회 내에 음란의 죄가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박의 영이 교인들에게 번지지 않도록 막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몸은 말끔히 치유됩니다.

하지만 암같이 강력한 질병이 있을 땐 주님의 몸도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심한 경우엔 죽기도 합니다. 주님의 몸이 죽는다는 것은 교회가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암세포는 원래 일반 세포와 똑 같은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세포로 돌아선 것입니다. 암세포는 정상적인 조절기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무질서하게 증식만을 고집하는 세포입니다. 암세포가 일반 세포와 다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제 멋대로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도 제 멋대로 행동하는 성도가 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님의 몸은 철저하게

질서를 유지해야만 정상적이고도 건강한 몸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면서 자기 뜻대로 행동하고 자기 고집대로 이끌어가고 할 때 교회는 엄청난 상처를 당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몸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질서에 순종하며 따르는 반면에 암세포는 세워진 질서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아무렇게나 증식하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암세포가 존재합니다. 암세포가 많이 모이게 되면 암 덩어리가 됩니다. 하지만 암 세포가 있거나 암 덩어리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세포가 암 세포로 만들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암 세포가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진 암 세포가 자극을 받아 활동을 하게 되면 온 몸에 퍼지게 되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문제가 활동하지 않고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사건이 발단하면 활동하지 않고 있던 문제들이 바깥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문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암 세포를 자극시키는 것은 분노입니다. 의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스트레스'입니다. 누군가 뺨을 치면 그것에 대한 분노가 생기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 것을 가져가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분노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사에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신경질적이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자기 뜻대로 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고 무조건 대듭니다. 그 사람이 옳은지 자신이 그릇되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자신과 반대되는 사람은 다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여깁니다. 이런 사고방식과 못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조용히 있던 암 세포를 자극해서 암 세포를 활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조용히 있는 암 세포가 활동하는 암 세포로 바뀔 때 다시 한번 활동하는 암 세포의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항암인자'라는 특유의 면역 세포를 준비하셨습니다. 일종의 '최후의 방어진'이라고 할까요. 항암인자의 말을 암 세포가 잘 들으면 활동을 멈추고 다시 조용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또한 조용히 있던 암 세포가 정상세포로 변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항암인자'는 '회개'입니다. 성도가 회개를 하게 되면 순식간에 정상적인 몸으로 변형됩니다. 잘못된 습관과 더러운 인격 등을 통해서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몸이 정상적인 몸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돕는 것이 '주님의 보혈'입니다. 누구든지 '회개'와 '보혈'을 통해서 정상적인 성도로 변하게 됩니다.

암에 걸린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주님의 '보혈'과 눈물의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처절할 정도로 울부짖음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못된 성격을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세상의 정욕에 빠져 살았던 못된 본성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

늘 문이 열리고 한 줄기 치유의 광선이 병든 사람의 영혼에 내리 비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은 더럽고 추악한 세포들을 다 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암 세포

교회에 이러한 암 세포가 있으면 안됩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성도는 모두 암 세포입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질서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암 세포와 같은 성도는 자기 뜻이 절대적입니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아무도 그 사람의 뜻을 꺾을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마귀는 '교만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교만을 사랑했으며 교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했습니다. 결국 교만 때문에 망했고 하나님 면전에서 쫓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 14:13-14)

루시퍼는 자신의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보다 더 위대한 자리로 올리려고 했습니다. 저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의 정죄함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그는 아름다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칭호를 뒤로한 채 '마귀'라는 이름을 가지고서 세상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사단이 하늘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눅 10:18)고 말씀하셨듯이 루시퍼는 그의 교만 때문에 저의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고 지옥 불에 떨어질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암 세포는 루시퍼와 같은 교만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교만을 좋아하면 루시퍼처럼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부하는 당신의 교만을 조심하십시오. 루시퍼를 따른 천상의 천사들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사도요한은 요한계시록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계 12:9)고 말했습니다. 마귀를 쫓았던 그의 사자들이 얼마쯤 되는지는 다음구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계 12:3-4)

마귀가 하늘전쟁에서 미가엘에게 패한 후에 땅에 떨어질 때 자신과 함께 하는 천사들을 이끌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무려 그 수가 하늘 천사의 삼분의 일에 해당될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성도들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저들을 꺾으셨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저들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우리 또한 당연히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선포할 때 마귀의 세력은 우리 앞에 꺾잡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귀는 교회 내에 암 세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기를 들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이 교만을 심습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교만'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마귀처럼 '타락'하게 될 것이고 '멸망'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에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일반교회에도 절실히 필요한 내용일 것입니다. 건강한 주님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반드시 바울의 말한 바를 잘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고전 12:12)

바울의 이 말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 성도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있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전 12:27)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고전 12:26) 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주님의 몸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지체는 서로가 아름다운 존재이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 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고전 12:21)고 말했던 것입니다.

또한 발이 스스로를 가리켜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주장하지도 못하고 손이 스스로를 가리켜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몸의 지체로 있다면 스스로 "나는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교회에서는 누가 크고 누가 작은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직분을 사모하고 높은 직책을 탐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낮은 직분을 속한 사람

들을 마치 자신보다 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여 주셨다" (고전 12:23-24)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곧 바로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고전 12:28)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질서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내에 몇 가지 그룹을 정하셨습니다.

1. 사도(아포스톨로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합니다. 진정한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사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유대인 중의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대제사장에 넘기는 일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다메섹 도로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행 9:4)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는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로 앞 구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홀연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행 9:3)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로 인해 바울은 눈을 뜨고 사물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장님이 되었던 3일 동안에 자신에게 들려졌던 주님의 음성에 대해 깊이있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라는 칭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사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당연히 주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도'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으며 주님으로부터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중 오직 선택받은 사람만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열린환상으로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당신을 '사도'로 부르지 않았다면 당신은 사도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사도'라고 칭한 사람은 당신도 그 사람을 '사도'라고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함이 옳으며 주님께서 그런 당신의 믿음과 순종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 1:1)

바울은 사도였으며 그의 사도직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었습니다.

2. 선지자(프로페테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누구라도 스스로를 가리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암 3:7)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 중 누구에게 이런 수많은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 있음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셨듯이 그렇게 오늘날에도 직접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3. 교사 디다스칼로스)

우리나라 성경에서 '교사'라는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선생'이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여진 곳을 보면 한결같이 예수님을 호칭할 때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사'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랍비'보다 훨씬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라고 말을 하면 뭔가를 가르치는 사람을 뜻한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단순히 육적이고 혼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일반교사의 뜻이라기 보다는 영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영적선생으로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로 들 수 있는 안디옥교회에도 '교사'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트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행 13:1).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을 성경은 '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을 사랑하고 섬겼던 사도였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결심을 했을 때 그것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그때 바울은 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시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껌임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행 20:18-20).

바울은 저들에게 껌손과 눈물을 보였습니다. 시험을 참으며 주님을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성령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은 담대히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교인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으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의 '교사'는 바울의 행한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교사가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목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교사'는 '선생'보다는 '목사'라고 번역해도 좋을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물려온 장로들을 향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행 20:22)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행 20:37) 바울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이여! 바울처럼 되소서. 당신들이 목회를 그만 둘 때 누구 한 성도라도 이처럼 당신의 목을 끌어 안으며 "떠나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울 사람들이 있습니까?

4. 능력(뉘나미스)

바울이 언급한 교회의 지도자 중에서 네번째 언급된 것은 직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능력'이라는 단어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일곱번째까지는 모두 은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일곱가지는 모두 은사적인 구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라는 직분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은사를 자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교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몇 가지는 어떠한 직분이 아니라 은사적인 구분이며, 은사를 통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사들이 종류에 따라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적인 은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최고의 우선적인 자리에 속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적인 은사를 가진 사람 중에서 이미 '사도'로 임명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그 '사도'적인 직분을 담임목사가 갖습니다. 따라서 모든 하나님의 계시와 명령은 '사도'의 직분을 받은 담임목사를 통해서 전해져 옵니다. 그렇기때문에 교회의 모든 성도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담임목사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목사의 말에 절대적인 순종을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사도적인 은사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은사를 가지고 '사도'의 직분을 부여받은 담임목사에게 순종하면서 당신의 은사를 협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울 때,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선지자' 직분을 받은 사람이나 '교사' 직분을 받은 사람의 다음 단계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위치는 교회의 가장 우두머리가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당신이 금가루를 내리게 하고 금이빨을 만들어 내는 은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질서에 있어 네번째 순위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5. 병고치는 은사(이아마 카리스마)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병고칠 수 있는 신유은사 소유자보다 더 위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에게 찾아와서 신유의 은사를 전이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환경속에서는 누구든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마다 일부러 한적한 곳으로 떠나 계셨습니다. 또한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한이 들 때마다 스스로 한적한 곳에 거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세입니다.

6. 서로 돕는 것(안티레프시스)

이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단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사용된 것 말고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말 그대로 남을 ‘돕는 것’ 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더 깊은 내용을 찾아보니까 ‘붙잡음’ 이라는 뜻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잘 적응하지 못하고 실족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여 다시금 교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붙잡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바나바사역’ 이라고 합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요 격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더라면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나바 때문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바나바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나바사역’ 을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에게 주보를 보내고 교회 잡지를 보냅니다. 어떤 교회는 엽서나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서로 돕는 은사에 속합니다. 교회에는 이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7. 각종 방언을 하는 것(게노스 글로사)

각종 방언은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은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방언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은 대신해서 대화가 가능하기 위함입니다.

지금이야 전세계 언어를 빨리 통변할 수 있는 기계가 통역자가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각 나라의 언어를 빨리 통변할 수 있는 통역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이야 비행기를 타고 빨리 올 수도 있고,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통역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각 족속의 방언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작은 부족을 방문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이러한 은사가 있으

면 저절로 그 족속들과 대화가 가능합니다. 또한 매우 빨리 그 부족의 언어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방언통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통변하는 것보다 직접 음성을 들으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방언하는 은사는 사실상 가장 낮은 위치에 속한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나열할 때에 ‘사랑’이라는 열매가 가장 크고 점점 작은 열매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뿐일 것이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만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 모든 성령의 열매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열매를 나열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언급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은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의 말씀’ 은사가 맨 마지막에 언급된 ‘방언들 통변’ 하는 은사보다 더 큰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강한 은사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은사를 종류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2:28절에 언급하고 있는 질서는 순서대로 나열한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사도’이며 가장 나중에 ‘방언하는 자’입니다. 방언하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물론 ‘서로 돕는 자’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윗단계의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을 경우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동을 불순종이라고 판단할 것이며 당신은 사울왕처럼 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다운 주님이 몸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웁니다. 보통 교회는 <목회자-장로-권사-집사-성도>순으로 질서를 세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는 이러한 질서를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권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직분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세워진 질서에 따라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천주교의 경우는 일반교회에 비해 다소 직분이 복잡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황-추기경-주교-사제-부제-신도>의 질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성경에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성경적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옳은 것입니다. 나는 지나칠 정도로 성경에서 모든 정보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저들에게 제자훈련을 했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처럼 12제자를 세우고 12제자에게 집중적인 제자훈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따라 한다면 뭔가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이발을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웃도 그렇게 입을 수는 없겠죠. 시대적인 흐름이 있는 것이니 요즘 목사에게 옛적에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두루마리를 들고 다니라고 권유한다면 목사는 심방 갈 때마다 U-haul 트럭을 빌려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적용될만한 것들은 얼마든지 많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다 놀라운 비밀을 찾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일곱 가지 직분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라는 권고를 바울로부터 들었습니다. 단순히 바울의 의도하는 바가 아닐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울의 말은 성경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는 바울이 말한 의도를 따지지 말고 그대로 실천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언급은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일 때 적용할 수 있는 맹점이 있습니다. 방언을 한 명도 못하는 교회에서 어떻게 이러한 질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음성도 못 듣고 환상도 못 보고 신유의 은사도 없는데 어떻게 질서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음성을 못 듣고 환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런 은사들을 다 무시하고 오늘날 세운 질서가 옳다고 주장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성경이 틀렸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틀릴 수 있고 나는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다고 보는 것이 옳은 믿음일 것입니다.

열쇠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질서를 세울 때 '열쇠'를 사용하십니다. '열쇠'는 통로를 의미합니다. 열쇠를 사용할 때 문이 열립니다.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차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열쇠 없이 문을 열거나 자동차를 몰고 가면 문제가 됩니다. 도둑이라고 몰릴 수도 있고 잘못하다간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요 10:9)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 14:6)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가리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문'이시기 때문에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오직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담임목사가 한 사람만 필요한 법입니다. 당연히 성가대에는 한 명의 지휘자밖에 필요치 않습니다. 동시에 두 지휘자가 지휘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 거대한 성가대를 지휘할 때는 한 명의 지휘자를 보고서 여러 지휘자가 똑 같이 지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성가대에는 한 명의 지휘자만 필요합니다.

정명훈 지휘자는 매우 유명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성가대는 정명훈 지휘자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명훈 지휘자가 우리 교회 성가대를 매주마다 지휘하면 몰라도 우리 교회 지휘자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초등학생들을 인도하는 전도사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이 전도사 허락 없이 주일학교 시간에 가르칠 수 없습니다. 오직 해당 전도사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초등학교를 인도할 수 있는 열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황이라고 할지라도 시골의 작은 성당에 가서 그곳 사제를 제치고 직접 예배를 인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주교 전체의 열쇠는 교황이 받았지만 작은 성당을 인도하도록 열쇠를 받은 사람은 그곳의 사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질서입니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이 다 자기보다 낮은 것이 아닙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열쇠만 있습니다.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문이 있으며 그 사람은 그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담임목사는 그에게 맡겨진 열쇠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 가서 다른 교회 담임목사 허락 없이 말씀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을지라도 담임목사 허락 없이 설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조차 인정하지 않으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열쇠'라는 단어는 유치원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열쇠'에 대한 이해를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완전 망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은 집집마다 찾아 가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모두 그 교회를 하나씩 떠났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 권사님은 담임목사를 불평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는데 담임목사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교인들이 다 떠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실상은 자기자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알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그 권사님이 뭘 잘못했는지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열쇠가 없는 사람이 자신의 의지대로 담장을 넘어서 그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어쩌면 열쇠를 가지고 있었겠죠. 천교담당 열쇠! 자신에게 주어진 열쇠가 천교담당 열쇠임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열쇠인줄 알고 열심히 문을 열려고 노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다가 안되니까 도둑같이 담장을 넘어간 것이 화근이 되었고 결국은 큰 문제로 발생된 것을 어찌 그 권사님이 알겠습니까. 어쩌면 천국에 갈 때까지 모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열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기란 이처럼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쇠'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열쇠'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은 좀처럼 남의 죄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의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네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딤후 5:22)는 말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주일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담당 선생이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절대로 담당 선생님께 "야~"라든가 "누구야"라면서 이름을 함부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000 선생님"이라고 깎듯이 대우를 해 줬습니다. 왜 그 권사님이 그렇게 대우해 줬을까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초등학교 1학년 담임선생님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초등학교 1학년의 열쇠를 쥐고 있는지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열쇠'에 대한 이해입니다.

담임목사가 해임되거나 교회를 떠나면 그 밑의 부목사나 전도사는 다 해임이 됩니다. 이것이 일반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담임목사가 오면 그 목사를 통해서 새롭게

부교역자가 선정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왕이 죽으면 왕의 신하들이 통째로 다 같이 죽는 것도 어쩌면 이와 같은 원리일 것입니다. 이것은 무식한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입니다. 부목사의 적이 담임목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담임목사를 제거해야 자신이 담임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모두 공동운명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대한 교회의 질서

어떤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교회의 질서를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음성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담임목사가 있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 예언자쯤 되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지만 담임목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큰 문제거리입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도무지 담임목사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임목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동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마치 담임목사와 동급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당연히 '열쇠'가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비록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열쇠'가 없다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합니다. 혹자는 "목사님,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서는 말해서는 안 되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음성을 듣는 사람이나 그것으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무조건 음성을 들으면 당연히 말을 해야 하는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래선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들은 성령님의 음성이 옳고 그른 것인지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담임목사에게 찾아가 성령님께서 들은 내용을 말씀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과정을 통해 들은 음성에 대해 분별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질서때문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 들은 음성을 점검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이러한 점검을 무시한 채 교회의 질서를 파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만나니” (고전 14:32)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서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른 예언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제재를 받게 하였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예언만 듣지 말고 여러 예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순서대로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질서있게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게 하였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 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찌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전 14:29-31)

오늘날 많은 교회는 교회 안에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배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엔 교회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염려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교회의 담임목사가 예언을 하지 못할 경우엔 더더욱 배제하게 될 것입니다. 보통적으로 교회 내에서 절대로 예언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심할 경우엔 교회에서 떠나라는 통지를 받기도 합니다. 이런 태도는 바울이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하심도 아닙니다.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최고인 것이 아니라 음성을 듣는 사람이 더 나은 것입니다.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아니냐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나 제대로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과정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단순히 예언하는 사람들을 배제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담임목사가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말대로 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권고하고 있는 바는 이렇습니다. 누군가 예언을 한다면 그 사람의 예언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예언자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면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수가 너무 많으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2~3명 정도의 예언이 적절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지만 자신의 예언만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사람이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선입견이 들어간 예언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예언자들의 예언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한 분별을 통해서 교회는 보다 정확한 예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며 보다 건강한 주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

성령사역을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도 음성을 듣고 너도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다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너도 음성을 듣고 나도 음성을 들으면 서로 똑 같은 등급입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만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음성을 들었지만 백성 중에서도 음성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데 임했을 때 모세와 함께 했던 70명의 장로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그 예언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회막에 나가지 않았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두 사람이 각자의 집에 머물면서 예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년이 잼짜게 모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옆에 있던 여호수아가 "내 주 모세여 금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그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출 11:29)고 말했습니다.

모세만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처럼 음성을 듣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를 위해 오직 모세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습니다. 열쇠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졌을 때 모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같이 가나안땅을 정복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 당시 모세는 120세였지만 아주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열쇠'가 여호수아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열쇠'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해서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번이고 똑같이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면 무지를 가장한 교만한 자임이 드러날 것입니다. 남의 '열쇠'에 대한 제대로 인식을 못한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게 어떤 열쇠가 주어졌는지 잘 모를 때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런 열쇠를 주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마치 열쇠터미를 받은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열린 입으로 아무 소리를 내 뱉고, 달린 손으로 아무에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자신이 교만해지는 것도 모르고 자신이 죽을 줄도 모르면서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잠 18:12)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김을 받게 된 것은 그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따르는 삼분의 일이나 되는 천사들도 '교만'을 좋아해서 마귀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교만'을 더 사랑해서 멸망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고요? 실제적으로 자신이 교만으로 죽을 줄 알면서도 끝까지 교만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처든 놋뿔을 기억합니까? 광야생활에 짜증을 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뿔을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위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모세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장대에 놋뿔을 달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놋뿔을 바라 보기만 하면 나음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장대에 단 놋뿔을 쳐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놋뿔을 쳐다 보고 산 사람보다 쳐다보지 않고서 죽은 자가 더 많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목이 굳어 있어 도무지 남의 말을 듣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지만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적으로 교만한 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교만한 줄 알면서도 교만한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담배가 안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끊을 수가 없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사람을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절대로 남의 '열쇠'를 빼앗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가 갖지 않은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남의 '열쇠'에 대해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십시오. 그냥 당신에게 주어진 '열쇠'만 사용하십시오.

12. 비록 방언의 은사가 있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며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고전 13:1-3). 사랑없는 구제 역시 아무 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친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나는 형제에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은 그런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사랑이 없이 행해지는 어떠한 것들이 아무 것도 아니라고 말하였습니까? 혹 당신은 사랑없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당신은 사랑하는 것보다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서로를 돌아 보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13. 사랑은 오래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

[고전 13:1]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팡과리가 되고

[고전 13:2]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

[고전 13:3]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 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나라

히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성내지 않으며 악한 것을 생각치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입니다(고전 13:4-7). 나는 이러한 사랑을 지니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언급한 사랑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떠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까? 종이에 당신의 사랑의 현주소를 적어봅시다

14.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 땅에서도 존재하지만 천국에서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고전 13:8-13).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자는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삶을 영위하는 자입니다.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어떤 것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말하였습니까? 당신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습니까? 당신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소망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현주소를 살펴봅시다.

15.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합니다(고전 14:2). 방언을 말할

[고전 13:4]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고전 13:5]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고전 13:6]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고전 13:7]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전 13:8]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고전 13:9]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고전 13:10]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전 13:11]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전 13:12]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전 13:13] 그러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4:2]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때 그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 듣는 자가 없으며 오직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보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훨씬 영적인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보다 영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무도 알아 듣지 못하고 영으로 비밀을 말한다고 말하였을까요? 당신은 방언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인 기도와 방언으로 하는 기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서로 나눠 봅시다.

16. 바울은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라고 말하였습니다(고전 14:4-5). 방언으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을 할 때에는 교회의 덕이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예언함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우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였을까요? 당신은 예언하는 사람입니까?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일까요?

게 하나니 이는 알아 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고전 14:4]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고전 14:5]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방언의 유익

예전에는 방언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날이갈수록 방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언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보기보다는 오히려 신령한 사람 정도로 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언을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집에서 방언하거나 혼자서 방언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는 아예 집이든 교회든 절대로 방언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전 14:39)

성경에서는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방언을 금하지 말라고 했으면 방언을 금해서는 안됩니다. 한 집안의 남편이 되었던 한 교회의 목사가 되었던 절대로 방언을 금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방언을 하지 못하게 막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 꾸지람을 듣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방언을 하지 못하게 막는 이유 중에는 방언하는 분들이 너무 설치고 다니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에 방언기도는 쉽게 남의 눈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성도간의 분열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고전 14:40)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방언하는 사람을 뭐라 야단치거나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방언기도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방언이란

방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glw'ssa*(1100, 글롯사)인데 이 말은 '혀'나 '방언', '언어'의 뜻입니다. 방언을 뜻하는 <글롯사>라는 단어가 '혀'라는 단어로도 사용되고 있는데 주로 이 단어가 '혀'로 사용되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거나 증거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한동안 혀가 막혀 말을 못하고 있다가 세례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눅 1:64)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의 성령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행 2:3)란 기록 중에 나오는 '혀'라는 단어가 바로 뒤에 나오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 2:4)는 구절 중의 '방언'이 모두 <글롯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처럼 '방언'이라는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로 사도행전의 성령강림 사건 이후에 믿는 자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방언은 믿는 자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아홉가지 성령의 은사 중에

방언의 은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방언의 유익

어쩌면 방언을 하지 못하게 막거나 방언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방언이 가져다 주는 유익을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방언의 유익함을 바로 깨닫는다면 저들부터 열심히 방언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방언을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전 14:14)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방언기도가 영의 기도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의지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보다 차원높은 영의 기도에 비해 그렇게 신령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방언기도를 드리는 사람 중에는 마치 자신이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떠들어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많이 아는 것처럼 뜬소문처럼 교회를 이리저리 휘 집고 다닙니다. 하지만 방언은 특별한 신령한 능력이 임할 때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기도는 그 사람의 의지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언기도를 의지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당연히 먼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일단 방언의 은사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방언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방언기도를 할 때마다 성령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며 그때마다 신령한 능력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기도는 어느 곳에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기도는 이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이처럼 의지적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왜 바울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라고 하였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것은 방언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방언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능 때문입니다. 방언은 처음에 의지로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처음 시작은 내 의지로 하였지만 방언기도가 점점 강하여지면서 영이 기도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나의 영이 기도하는 단계에 이르면 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단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의 영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이 기도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다만 방언으로 기도할 때 처음에는 마음(의지)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영으로 기도하는 단계에 도달하여서 영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영으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영의 세계는 곧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육과 혼을 이용하여 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오직 영으로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육과 혼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이 활성화될 때에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세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천국입니다. 이처럼 방언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방언기도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영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영에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영은 아주 빠른 시간에 영이 활성화될 것이며 육과 혼으로는 누릴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활성화될 때에 주님과 동행이 더욱 구체화되고 세세한 체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을 깨끗게 한다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그 만큼 그 사람의 영이 깨끗해집니다. "왜 방언을 하면 영이 깨끗해질까요?" 그것은 방언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방언은 영적인 기도입니다. 우리의 혼적인 의지와 생각들을 영적인 사모함과 체험들로 바꿔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고전 14:2)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마음으로는 매우 답답할 것입니다. 통변의 은사가 있다면 답답함이 해소되겠지만 사실은 방언으로 말할 때 통변하려고 애쓰기 보다는 오히려 그 방언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사실로 감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말을 할 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영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막의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는 분향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분향단은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향기입니다. 그 향은 곧 성도의 기도입니다. 사도 요한은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이십사 장로들이 어린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계 5:8)고 말했던 것은 우리의 기도는 마치 향처럼 하나님께 올려 드려지는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연유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썩은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히 9:3-4)

원래 분향단(금향로)은 지성소의 휘장 앞에 성소 안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도록 명령하셨을 때 분명히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분향단이 지성소 안에 들어 있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이처럼 분향단은 영적인 기도입니다. 모세시대 때 지성소 앞에 있었던 분향단이 우리의 마음으로 드러지는 방언기도였다면 지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은 우리의 영으로 드러지는 방언기도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세상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어느 성경주석에도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를 드려본 사람이라면 나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기도는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적인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의 마음을 뛰어넘어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의 영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에서 벗어난 영이기 때문에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영 그 자체는 깨끗한 것입니다. 영이 스스로 더러워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육과 혼의 그릇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육과 혼에 의해 더러워진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말을 할 때에 우리의 더러워진 혼은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방언은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처럼 방언을 통해 깨끗해진 영은 계속적인 방언을 통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최고봉이라 말할 수 있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하루 종일 방언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방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능력을 받았습니다. 해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그 아들이 해긴 목사님의 자서전을 지을 때 아버지와의 경험을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루는 야구장에 함께 갔는데 아버지가 계속해서 중얼중얼거리더라는 것입니다. 야구 구경을 보면서 방언으로 중얼중얼 할 정도이니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얼마나 방언을 열심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방언을 했던 사람이 비단 케네스 해긴 목사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 14:18)

이것은 바울의 말입니다. 바울 자신이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해긴 목사님처럼 하루 종일 방언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쩌면 잠을 자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방언은 우리를 영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언이 가져다 주는 유익함 때문입니다. 방언은 이처럼 우리의 영을 활성화시키며 우리가 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방언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든다

방언은 우리의 영을 강하게 만듭니다. 방언을 말할 때 우리의 영이 집중되기 때문이며 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고전 14:3)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덕'이라는 단어는 <오이코 도메>로써 '세움' 혹은 '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덕'이라는 단어를 단순한 덕스러운 성품을 세워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덕'을 세운다고 말을 했을 땐 단순히 덕스러운 성품을 강하게 하는 정도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전 3:9)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 역시 '떡'이라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고전 3:16)라고 '집'에 대한 그의 생각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떡'이라는 말을 사용했을 때 마치 영의 집이 세워져 가는 것을 말했을 것입니다. 그 집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 집은 성전처럼 지어져 가는 것을 그림으로 그렸을 것입니다.

바울은 방언을 통해 우리의 영이 얼마나 강력하게 세워져 가는지 알고 있었었습니다. 방언을 통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으며 방언을 통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었습니다. 물론 방언이 없어도 우리의 몸은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통해서 그 성전이 아름다워지고 강력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방언을 더 많이 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모두는 바울의 능력이 얼마나 컸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방언을 가장 많이 했다고 말했다면 방언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방언에 어떠한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알려면 방언을 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방언을 할 수 없다고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방언을 못한다고 해서 방언하는 사람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방언을 받으려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방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영은 방언을 통해 더욱 강력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나만이 갖는 비밀대화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고전 14:2)

방언은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화입니다.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 일대일의 대화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도는 영적인 악한 영들이 방해로 놓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악한 영들이 듣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말을 할 때는 악한 영이 방해를 주지 못합니다. 방언 그 자체가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말을 할 때 우리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소리를 내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로 소리를 낼 때 마귀는 그 사실을 알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전달되지 않도록 훼방을 놓습니다.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마귀의 방해를 잘 알고 있었었습니다. 그가 21일 동안 기도를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서 곧장 도움을 주려고 왔는데 "바사 국군이 이십 일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단 10:13)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곧장 오려고 했지만 21일 동안 바사 국군이 막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사 국군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사 국군은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악한 영이 천사가 다니엘을 도우러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앞 구절에서 천사가 언급한 말을 살펴볼 때 명확해집니다. 천사는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들으신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단 10:12)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다니엘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원하는 간구를 올렸던 것입니다. 단순히 목상을 하거나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처럼 악한 영들은 우리의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우리의 생각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들으시지만 악한 세력 역시 그 기도를 듣습니다. 많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만 그 기도가 다 응답 받지 못하는 것도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 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도 못하면서 떨어지고 마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도보다 방언기도가 훨씬 좋은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악한 영들이 무슨 기도를 드리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방언기도를 시키십니다. 갑자기 잠에서 깨어나 중보기도를 드려본 분들은 알겠지만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비밀스러운 기도가 됩니다. 누군가 들을 수도 없으며 그 기도를 훼방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기도를 왜 마다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은밀한 일대일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방언기도를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중보기도를 하게 한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셨습니다. “왜요? 성령님” 조금은 불만 섞인 어조로 성령님께 따지듯 말을 던졌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기도실로 들어 갔습니다. 그때에도 웃장 안이었습니다. 방에는 아이들이 자고 있었고 웃장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데로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언급한 누군가를 위하여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나는 방언기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통변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위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것은 조금 이상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통변하면서 방언하는 것 역시 적극적인 방언기도의 태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방언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바라면서 오직 영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올바른 방언기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방언으로 중보기도를 하게 되면 강력한 중보기도가 됩니다. 이미 앞서 왜 방언기도가 강력한 중보기도가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방언기도는 악한 영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방해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방언 자체가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강력한 중보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열심히 간구도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도 하십시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절대로 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보다 더 좋은 대화

그러나 우리가 한가지 염두 해 둘 것이 있습니다. 방언은 높은 단계의 은사가 아닙니다. 가장 높은 단계의 은사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그는 평소에 사람들을 만날 때 수건을 뒤집어 쓰고 다녀

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력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에 대해 그가 방언을 했다는 내용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대가이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을 기도하는데 사용하셨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으며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행 10:38)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충만함과 능력을 기름붓듯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무던히도 열심히 기도에 열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막 9:29)고 말씀하실 정도로 기도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느 곳에도 주님께서 방언을 하셨다고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그 어떤 선지자에게도 방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구약시대의 방언은 각 나라나 족속의 ‘언어’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방언을 가장 많이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방언을 할 줄 아는 교인은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다소 영적인 교회에 가면 아예 방언으로 통성기도를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방언으로 찬양까지 부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강림 사건 때문에 생겨난 현상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방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언급하신바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막 16:17)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귀신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르지만 방언의 표적도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방언의 중요성을 아셨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방언의 의미는 오순절 이후의 성도들에게 주어졌던 방언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신 새 방언은 문자 그대로 새 언어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의 방언은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영의 기도의 도구라는 점입니다.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일종의 표적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드리는 방언은 표적이라기 보다는 영으로 기도하기 위해 필요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방언은 믿는 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은사입니다. 하지만 방언은 최고의 은사가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이 방언은 높은 단계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아홉가지 은사의 높고 낮음을 얘기한다면 잘못된 태도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은, 방언은 은사 중의 가장 낮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방언이 열려야 비로소 다른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은 낮은 은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낮은 은사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방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방언보다 오히려 더 강력한 것은 대화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다윗 역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으며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세례요한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경우에도 여러 차례 방언을 시도했습니다. 특별히 케네스 해긴 목사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방언을 가장 많이 했다는 성경말씀은 저로 하여금 방언으로 말하는 것에 대한 도전심을 불러 일으키기엔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 "왜 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의 말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왜 네가 나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데 굳이 방언을 하려고 하느냐?"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성령님께 "케네스 해긴 목사님도 방언을 그리 열심히 해서 큰 능력을 가지셨고, 바울도 그렇게 방언을 열심히 했잖아요?"라고 했더니 "나와 대화하는 것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몇 번의 시도를 중지했던 적이 있습니다.

나는 성령님의 말씀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방언과 대화에 대한 성령님의 말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말씀따라 방언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을 내서 성령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방언으로 말을 할 때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성령님과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친구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과 늘 대화를 나눈다고 할지라도 기도할 때는 거의 어김없이 방언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방언으로 말을 하지 않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과 많이 대화를 나누기를 권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겠지요. 하지만 성령님의 음성을 이미 들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과 대화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부사이에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떤 부부는 정말로 대화가 없습니다. 차를 타고 한 시간 이상 함께 오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부부를 알고 있습니다. 부부사이라고 해서 대화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대화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관계도 대화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무슨 일든지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설거지를 할 때도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음식을 할 때에도 양념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라고 합니다. 벡타이를 땀 때에도 어떤 벡타이가 좋을지 여쭙고 보라고 합니다. 이런 대화연습은 성령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좋은 연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대화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성령의 아홉가지 은사들의 시작은 방언이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은사가 실제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긴밀한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대화에는 결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합니다. 방언만 해도 악한 영이 틈을 타지 못하는데 하나님과의 나누는 영적인 대화에 악한 영이 어찌 틈을 탈 수 있겠습니까?

17.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고전 14:14). 이는 마음으로 기도하

[고전 14:14]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

는 것과 다른 차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방언은 우리를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할 때 무슨 열매가 맺지 못한다고 하였습니까? '마음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마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당신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18. 바울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한다고 말하였습니다(고전 14:15).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찬송하는 것이 있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영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영으로 찬송하면서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기도의 두 가지와 찬송의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였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영의 기도와 마음의 기도, 영의 찬송과 마음의 찬송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함께

하지 못하리라

[고전 14:15]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체험을 나눠 봅시다.

19. 바울은 교회 내에 찬송시도 있고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변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고전 14:26-30).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그 어떠한 것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는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결코 행하지 않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교회 내에 어떠한 것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에는 반드시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까? 당신의 삶은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 삶입니까? 혹 당신의 사역이나 행동이 교회와 성도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아 봅시다

20. 바울은 교회 내에서 예언할 때 차례를 따라 질서대로 예언하라 말하면서 교회에 질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질서를 통해 화평을 유지할 수 있음을 말하였습니다(고전 14:31-33). 이는 하나님께서 질서의 하나님이지요 화평의 하나님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사

[고전 14:26] 그런즉 형제들이 어찌할고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고전 14:27]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고전 14:28]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전 14:29]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고전 14:30]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고전 14:31]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고전 14:32]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고전 14:33] 하나님은 어지러운 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

는 귀중한 것이지만 은사자들을 통해 교회의 질서와 화평이 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가진 자로서 교회 질서와 화평을 유지하는 것을 가장 주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교회 내에 예언을 차례에 따라 하라고 하였을까요? 당신은 교회 내에서 질서를 잘 따르고 있습니까? 왜 질서를 잘 따르는 것이 교회에 화평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일까요? 당신의 삶은 질서를 따름으로 화평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당신 삶에서 질서가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고백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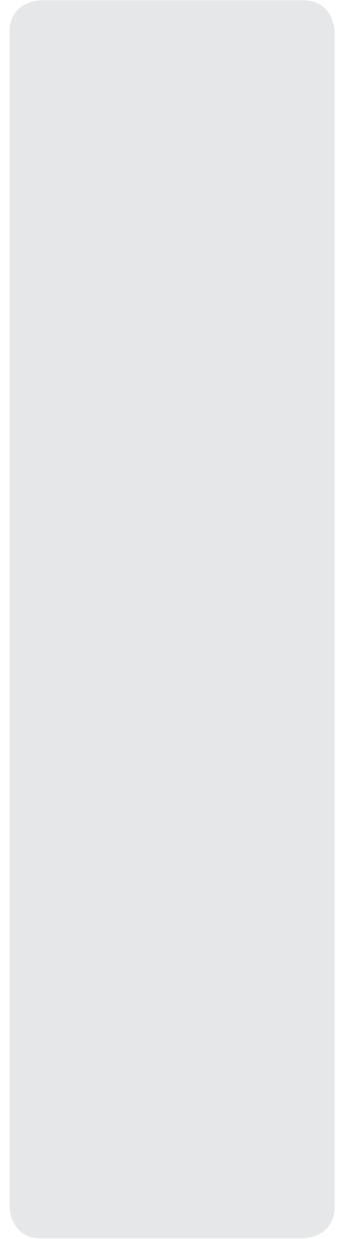
21. 바울은 교회 내의 질서에 대해 말할 때에 여자에게 필요한 질서도 함께 말하였습니다. 교회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 우두머리 되십니다(고전 14:34-38). 주님은 남자의 머리요 남자는 여자의 머리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대로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대로 순종하며 교회가 질서있게 운영되도록 참여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하였을까요? 교회 내에 존재하

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전 14:34]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고전 14:35]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임이라
[고전 14:36]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고전 14:37]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고전 14:38]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는 질서는 무엇일까요? 당신이 순종해야 할
윗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윗 사람의 말
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혹 하나님께서 세우
신 질서를 파괴했던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
는지 고백해 봅시다.



제5장 부활에 대해

1.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으며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고전 15:4-6).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들의 삶은 오직 주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남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당신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난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2.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고전 15:12-14).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자 또한 부활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복음을 전파하는 노력도 헛것이며 믿음도 헛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며 나도 부

[고전 15:4]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전 15: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고전 15:12]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전 15:13]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전 15: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활할 것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생활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까요? 당신은 주님의 부활처럼 그렇게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부활신앙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3. 우리의 삶은 단순히 이 세상에 국한된 삶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천국에 거하게 됩니다(고전 15:19). 비록 몸은 이 세상에 있으나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국한된 것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불쌍한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어떻게 된다 하였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국한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4.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전 15:20-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고전 15:19]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만이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니까? 당신은 죽은 후에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날 것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이 당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니까?

5. 주님께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실 때에 주님 자신도 만물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아버지께 복종하실 것입니다(고전 15:27-28). 이는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셨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께 복종함으로써 주님의 주시는 영화로움을 누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주님께서 만물을 복종케 하실 때에 하나님아버지께 어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습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아버지께 복종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주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아버지께서 주님을 영

[고전 15:21]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고전 15: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전 15:27]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고전 15:28]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화롭게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그에게 속한 자들을 영화롭게 하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지금 영화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6.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고전 15:35-38). 마치 뿌려진 씨가 죽은 후에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죽음 이후에 다시금 부활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부활함으로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을 믿습니까?

▶ (그룹제안) 만일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 것이 되고 말까요? 당신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죽음 이후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일까요?

7.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늘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형체는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고전 15:39-41). 땅의 영광은 이 땅이 없어질 때 사라질 것이나 하늘의 영광은 영원토록 존재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에도 여러 등급이 있어 각 사람의 거할 영광이 다릅니다. 나는 더욱 존귀한 하늘의 영광에 거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까?

[고전 15:35]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고전 15:36]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고전 15:37]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고전 15:38]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중 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고전 15:39]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고전 15:40]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고전 15:41]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 (그룹제안) 바울은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늘의 영광의 여러 등급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였습니까? 지금 당신은 어떤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늘의 영광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8. 아담은 첫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주님은 마지막 사람으로서 이 땅에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고전 15:45-46). 흙에 속한 자는 흙의 형상으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형상으로 영원히 살아갑니다. 땅에 속한 자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지만 하늘에 속한 자는 영원한 삶을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위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첫 사람 아담에게 속한 자와 마지막 사람 주님께 속한 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왜 주님께 거한 자는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요? 당신은 주님 안에 거하면서 영원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9.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듯이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

다르도다

[고전 15:45]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고전 15:46]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고전 15:50).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썩지 않는 것만 존재 하며 영적인 것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썩어질 혈과 육을 버리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였습니까? 당신에게 있는 혈과 육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있는 혈과 육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지 못하지는 않는지요?

10. 부활은 사망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고전 15:56). 부활은 사망의 쏘는 고통을 꺾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죄는 사망의 쏘는 고통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통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나는 죄로 인해 사망의 쏘는 고통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죄를 다스리기 위해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사망이 쏘는 것을 죄라 말하였을까요? 죄는 당신에게 어떠한 사망을 가져다 줍니까?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고전 15:50]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전 15:56] 사망의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제6장 사랑의 충고

1.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사형선고를 받은 자처럼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받았습니다(고후 1:8-10). 하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망이 되었으며 하나님은 저들을 지켜 주셨습니다. 나는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사형선고와 같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때문이었습니까? 당신도 바울처럼 사형선고와 같은 극심한 환난 속에서 견디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당신이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형선고와 같은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할까요?

2.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방문하지 않았던 것은 고린도교회 성도를 아꼈기 때문입니다(고후 1:23). 만일 그가 고린도교회를 방문했다면

[고후 1: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고후 1:9]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고후 1: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고후 1:23]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면 많은 성도들이 질책을 받거나 파문을 당하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에 있어서 좀 더 시간을 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나는 선불리 판단하여 행동하지 아니하고서 오직 형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고린도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으로 좀 더 신중하게 행동했던 적이 있습니까?

3.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에 눈물로 썼습니다(고후 2:4). 이는 그의 마음에 큰 놀림과 걱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울에게 고린도교회를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형제를 향한 사랑의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나는 형제를 향한 사랑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쓸 때 눈물을 흘렸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당신은 눈물의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위해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고후 2:4]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4. 바울은 교회 내에 성도들을 근심케 만드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라고 권고했습니다(고후 2:5-8). 오늘날 교회 내에 이렇듯 근심케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감싸줘야 할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근심케 하는 자를 용서하며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교회 내에 근심케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교회 내에 성도를 근심케 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당신에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요?

5.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성도를 근심케 하는 자들을 용서하라 권하였습니다(고후 2:10-11). 주님은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형제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주님의 용서함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성도들이 근심케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할 때에 자신도 저들을 용서한다고 하였습니까? 당신은 죄 지은 자를

[고후 2:5]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고후 2:6] 이러한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은 것이 족하다

[고후 2:7]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고후 2:8]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희에게 나타내라

[고후 2:10] 너희가 무슨 일든지 내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고후 2:11]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궤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용서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당신이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체험이 있습니까? 혹 지금 당신의 불행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 생겨난 것은 아닌지요? 한번 자신을 돌아 봅시다.

6.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후 2:14-16). 우리를 통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역겨운 냄새를 풍기며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성도들은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무엇이라고 하였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향기를 통해 누군가 주님께로 나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 나오기를 꺼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7.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였습니다(고후 3:2-3).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고후 2:14]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후 2:15]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고후 2:16]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좇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좇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고후 3:2]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못 사람이 알고 읽는바라

[고후 3:3] 너희는 우리로 말미

으로 쓴 것이며 심령 가운데 쓴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되 육적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영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지가 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을 더욱 인정하시고 크게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는 형제를 육적인 사랑보다 영적인 사랑으로 대함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편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고 말하였을까요?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무엇으로 썼다고 했습니까?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쓴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편지가 되게 하기 위해 영적인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까?

8. 바울은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율법 조문에 의해 주어지는 직분과 영의 직분의 차이를 구분하였습니다(고후 3:6-8). 율법에 의해 주어지는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나 영에 의해 주어지는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나는 율법에 의한 직분보다 영에 의한 직분을 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심비에 한 것이라

[고후 3:6] 자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고후 3:7]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의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막하지 못하였거든

[고후 3:8]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 (그룹제안) 바울은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과 영의 직분을 어떻게 구분하였습니까? 왜 바울은 그렇게 말하였던 것일까요? 당신은 혹 율법 조문에 의한 직분에 얽매임으로써 영의 직분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거나 그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지는 않습니까? 율법에 의한 직분과 영에 의한 직분에 대해 서로 구체적으로 나눠 봅시다.

9. 바울은 영의 영광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에게 임한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고후 3:13-16).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없어지고 사라질 영광을 좋아하며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세상적인 사역자가 있습니다. 나는 썩어 없어질 세상의 영광을 좇지 않고 오직 영원히 함께 할 영의 영광을 좇으며 살겠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모세처럼 영광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얼굴에 수건을 쓴 것 같이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을까요? 고의적인 것은 아니겠으나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존재로 부각되고 말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에 의한 영광을 추구하기 보

[고후 3:13]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치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고후 3:14]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고후 3:15]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고후 3:16]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다는 세상의 뛰어난 모세와 같은 인물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0.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고후 3:17).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것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나는 주의 영광과 함께 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 하였습니까?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당신은 진정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당신으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수건은 무엇입니까?

11.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 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고후 4:8-11). 누구든지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을 지닌 자로서 그 어떠한 환난도

[고후 3:17]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후 4:8]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쓰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고후 4:9]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후 4:10]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 4:11]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능히 이겨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생명을 지님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환난을 능히 극복했던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의 생명이 함께 하는 자는 극심한 환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12.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고후 4:16-18). 우리의 받는 환난은 지극히 작고 경한 것이며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하며 중한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받고 있는 환난을 지극히 작은 것으로 여기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영광스러운 것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바울의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어떻게하면 겉사람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고후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고후 4:17]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후 4: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속사람이 새로워질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것일까요?

13.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고후 5:1).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는 이 땅에 거하고 있지만 썩어질 육신의 집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지으신 장막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말한 이 땅의 집과 하늘의 집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당신은 이 땅의 집에 의존하여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늘의 집을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의 집'이 우리의 육신을 의미할 때 '하늘의 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14. 믿음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고후 5:7).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속한 것에 관심이 있기 보다는 오히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간구한 모든 것들이 이뤄졌음을 실상으로 바라

[고후 5:1]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고후 5: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보며 그것을 선포하며 취하는 자들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말한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상으로 바라보며 그것을 선포함으로 취하는 자입니까? 그런 믿음으로 나타난 놀라운 체험을 함께 나눠 봅시다.

15.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으니 죽은 후에는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을 받습니다(고후 5:10). 선악간의 행한 것에 따라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어지며 영원토록 정해진 처소에 살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죽음 이후에 선악간에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람이 죽은 이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당신은 죽음 이후에 선악간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심판날을 준비하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심판 날에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서기 위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16.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고후 5:10]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것입니다(고후 5:16-17).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으니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나는 새롭게 지은 바 받은 피조물로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당신은 지금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과거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며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고백을 서로에게 해 봅시다.

[고후 5: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후의 세계

사람은 누가가 죽게 됩니다. " [히 9:27]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태어나는 순서는 있어도 죽는 순서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태어났으면 한 번은 죽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은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100년 안에 모두 죽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사람이 죽을 것이기에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욱 가까이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 [전 7:4]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어떠한지 아는 것은 우리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에덴동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곳에 에덴동산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진정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 [창 2:7]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동산을 거하게 하였고 에덴동산의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창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에덴동산은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에덴동산이 행복했던 이유는 죽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영원히 죽지 않을 불사불멸의 존재로 거하였습니다. 에덴동산에는 먹을 것이 충만했습니다. 아담은 평생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죽음이 없었으며 먹을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에게 배필이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그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셔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의 배필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먹을 것이 풍족했으며 죽음의 걱정도 없었던 에덴동산은 그야말로 행복한 장소였습니다.

복천년

하지만 아담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에덴동산에게 쫓김을 당하였습니다. 결국 에덴동산의 문은 닫히고 말았습니다. 그 누구도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에덴동산의 문을 여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이뤄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복된 장소로 변화될 것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모두 불잡혀 무저갱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계 20:3]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 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세력이 모두 불잡혀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은 복된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복천년 기간동안 이 땅은 에덴동산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복천년 기간동안에 어떠한 상태로 존재하게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는 복천년의 상태에 대해 보다 자세히 언급되었습니다.

"[사 65:17]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사 65:18]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사 65:19]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 65:20]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 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 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은 자이리라 [사 65:21]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사 65:22]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사 65:23]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와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사 65:24]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 65:25]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복천년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때입니다. 하지만 복천년 때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의 것과는 다릅니다. 복천년 때 변화되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는 것이지만 천국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전혀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사도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모두 천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렇듯 새로 창조된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의미하지만 이사가 언급한 새 하늘과 새 땅은 복천년을 위한 것입니다.

복천년 동안에는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땅은 복된 땅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기후변화로 인해 황폐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 이전에 이 세상의 하늘과 땅이 황폐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벧후 3: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 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벧후 3: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도."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변모될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모두 무저갱에 갇힌 것도 감사할 일이지만 이 땅이 에덴동산으로 변화되는 것은 크나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복천년은 천년의 모형과도 같은 것입니다. 천년은 영원한 나라이지만 복천년의 기간은 천 년입니다. 천 년동안 복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의 누릴 축복은 천국에서 누릴 축복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복천년 때 누릴 축복도 큰 것이지만 천국에서 누릴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복천년 때 백 세가 되기 전에 죽는 자는 저주받는 사람이라 일컬을 정도로 장수하는 삶을 누립니다(사 65:20-22). 하지만 천국에서는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복천년 때는 각 개인마다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이며 그 땅을 통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사 65:21). 이 세상에서는 수고하여도 얻어지지 않을 때가 있지만 복천년 때는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도 않을 것입니다(사 65:23). 하지만 천국에서는 수고하지 않아도 먹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지만 복천년에서는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복천년 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 우리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사 65:24). 하지만 천국에서는 음성을 듣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친구처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복천년 때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미움도 없고 싸움이나 전쟁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동물들도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사 65:25). 이러한 복천년의 모습은 에덴동산의 재현입니다. 아담이 누렸던 축복된 삶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

사도요한은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요한은 천국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창조된 세 계임을 보았습니다. "[계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한 그는 '새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복천년 때에도 '새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사 65:18-19). 하지만 복천년의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이었습니다. 복천년 때의 모든 누리는 복이 천국의 복에 대한 모형과도 같은 것이었듯이 복천년 때의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새 예루살렘의 모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장막은 이 땅에서의 성막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장막의 모형으로 이 땅에 성막을 만드셨습니다. "[히 8:5]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천국의 '장막'과 구약의 '성막'의 단어는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천국의 장막에 사용되는 <스케네>라는 헬라어는 구약의 성막에 해당되는 <미쉬칸>과 같은 뜻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세상의 성막과 천국의 장막을 동일선에 두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성막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이미 천국의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성막을 통해 천국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행복이 쌓여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진 곳입니다. 천국의 공기는 '믿음'입니다. 천국 어디에 가더라도 '믿음'으로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셔야 숨을 쉴 수 있듯이 천국에서는 믿음을 취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천국은 소망의 삶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삶의 전부이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전부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생깁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천국의 삶에는 소망으로 가득차게 될 것입니다.

또한 소망은 사랑으로 가득찬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가득히 채워질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채워진 나의 심령은 천국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를 취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계 22:2]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생명나무가 존재하는 생명수의 강은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옵니다. "[계 22:1] 또 그가 수정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아버지와 주님은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십니다.

새 예루살렘 성은 천국의 한 부분이지만 그곳에는 오직 하나님아버지와 예수님만 계시기 때문입니다. "[계 21:22]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성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아버지와 주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

우리는 천국에 거하면서 하나님아버지와 주님께서 거하시는 새 예루살렘을 방문케 될 것입니다. "[계 21:24]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은 천국에 거하는 모든 성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천국에 거하는 각 사람을 '거룩한 나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거룩한 나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베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밝혔습니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낙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에 행악자 중 한 사람에게 낙원에 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눅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낙원은 천국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비된 곳입니다. 예수께서 돌아가셨을 때 '낙원'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천국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께서 재림하신 후에만 들어지는 것이며 복년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원이 천국의 예비된 장소라고는 하지만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록 천국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만 이미 천국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곧 천국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천국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이미 천국이 도래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 12: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육신이 있습니다. 물론 영혼도 함께 있습니다. 천국에는 육신과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가능합니다. "[전 12:7] 흠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수께서 죽으실 때에 낙원에 거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이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육신이 죽지 않으면 낙원에 거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강도에게 '천국'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낙원'에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직 천국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천국과 낙원은 같은 개념입니다. 선한 자는 낙원에 거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선한 자입니다.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자만이 선한 자입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강도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낙원에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낙원에 거하는 것은 곧 천국에 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가 이르러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복천년이 지난 후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여 백보좌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은 후에 자신의 행실에 따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될 때에 자연스럽게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은 낙원에 거하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음부에 거한 자들이 모두 나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하지만 저들은 심판 후에 곧바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할 것입니다.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음부

음부의 개념도 낙원의 개념과 같습니다. 때가 되어 심판을 받은 후에 지옥에 거할 자들은 지금 음부에 거하고 있습니다. 음부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 거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음부와 지옥은 같은 것입니다. 다만 때가 찰 때까지 음부와 지옥의 구분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진정한 천국과 지옥이 열리게 될 것이고 음부에 거한 자들이 모두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음부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거지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거하였지만 부자는 죽어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눅 16: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눅 16: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음부에 거한 부자는 때가 되어 부활할 것입니다. 심판날에 부활한 상태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지옥불에 떨어질 것입니다.

지옥

지옥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악한 세력들 모두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계 20:10]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성경은 '지옥'을 가리켜 '유황불' 혹은 '불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천국과 정 반대의 개념이지만 영원하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천국의 행복이 영원하듯이 지옥의 고통은 영원합니다.

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롬 10:9]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비록 사랑하는 부모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조국과 민족을 위해 위대한 공헌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지옥에 갑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하심에 동의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나와 내 가족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뿐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다소 이기적인 말같지만 나와 나의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어찌 큰 기쁨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나의 가족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전부입니다. 다만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 7 장 참된 기독교인의 삶

1.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아버지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로 삼으신 것입니다(고후 5:18).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화목제로 삼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야 하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도록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2.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고후 5:21). 이는 예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하

[고후 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의 보이신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3. 기독교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 있으며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며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고후 6:9-10). 나는 주님 안에서 유명하며 살아있으며 죽임을 당치 아니하고 기뻐하며 부유하며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떻게 기독교인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바라보는 눈과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당신 자신의 모습은 어떠한지 함께 나눠 봅시다.

4.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메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고후 6:14-16).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으며 빛과 어둠이 사귀지 못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고후 6:9]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고후 6:10]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 6:1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고후 6:15] 그리스도와 벨리알

조화되지 않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나는 믿는 자로서 정결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 하시면서 어떠한 비유로 설명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메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신은 실제로 정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이 당신으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보장해 줍니까?

5.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고말하였습니다(고후 6:18). 바울은 스승이 되기 보다 아비가 되길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를 삼을 때 스승이 되기 보다는 아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제자를 삼을 때 스승이 아닌 아비로서 대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자 했습니까? 왜 바울은 스승이 되기 보다는 아비가 되고자 했을까요? 당신은 어떠한 사람을 제자 삼을 때 스승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비로서 함께

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고후 6:16]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고후 6:18]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까?

6.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서도록 권고하였습니다(고후 7:1).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면 할수록 더욱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직 거룩한 자만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온갖 더러운 것에서 영과 육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함으로써 온전히 주님과 함께동행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권고하였습니까? 당신은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기 위해서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일까?

7.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에 기뻐했습니다(고후 7:9).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근심하여 회개함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나는 지은 죄에 대해 근심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고후 7:1]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이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케 하자

[고후 7:9]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기뻐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가장 기쁘시게 받으실까요? 당신은 지은 죄에 대해 근심함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근심함으로써 회개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8.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합니다 (고후 7:10). 나는 회개에 이루는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망을 이루게 하는 세상의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세상의 근심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떠한 근심이 많습니까? 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에 이루게 할까요?

[고후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의 단계

정결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죄에서 벗어난 생활을 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깨끗해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도 죄를 짓지만 사람에게도 죄를 짓습니다. 사람에게 죄를 짓는 것은 이웃과 나 자신에 대한 죄입니다. 회개에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에 따르지 않는 회개는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의 인식

첫째로 회개에는 죄의 인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죄를 지었

든지 죄를 인식하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큰 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십계명을 받기까지 무려 40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했던 귀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없는 틈을 타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숭배를 하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진노하였고 백성 중 삼천 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 저들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저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잠시 잠깐뿐 조금 지나면 곧 잊어버렸습니다. 이러한 죄의 인식은 회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삼상 12:23)이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를 쓴다는 것은 일반인에게 아무런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웬만한 성도에게도 기도를 쓴다는 것이 그렇게 큰 죄라고 생각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기도의 멈춤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휼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잠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을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인식하는 것은 회개의 단계에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살인의 큰 죄를 범했다라도 조금도 죄를 인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기도를 게을리 하는 것을 큰 죄라고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온전한 회개를 낳게 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창 4:9)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뻔뻔한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 대하는 저의 행동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동생에 대해 물었으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 살려달라 용서를 빌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하나님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반문했습니다. 동생을 죽였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쩌면 가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며 죄에 대한 합리성만 만들어 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들춰 내셨을 때 비로소 가인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 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창 4:10-11)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비로소 땅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죄를 인식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가인의 다음 모습을 보십시오.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창 4:12)
 가인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동생을 죽인 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내 죄벌이 너무 중합이다"라는 말 밖에 없을까요? 적어도 가인은 "저를 죽여 주십시오"라고 해야 했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개의 단계를 밟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 인식은 중요합니다.

죄의 애통함

둘째로 회개에는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인식하게 되면 죄에 대한 부담감이 마음에 생깁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큰 고통이 생겨납니다. 죄를 인식하면 할수록 그 고통은 더 커집니다. 회개를 잘 하기 위해선 마음에 큰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시편은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시 38:18)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에스라를 아십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태어난 학자요 율법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죄에 빠져있었습니다. 거룩의 상징이었던 레위인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정직의 상징이었던 관리들도 이방여인을 아내로 맞아 드렸습니다. 온 백성이 이방여인을 집으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일로 울며 기도하였을 때에 백성들의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스 10:1-2)

보십시오. 에스라가 통곡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그 앞에 나와 함께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뭇 때문에 통곡했습니까? 바로 저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자복했으며 저들의 죄에 대해 통곡했습니다.

이처럼 죄는 고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런 고통이 없으면 이는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죄에는 고통이 따라야 합니다.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후 목매달아 죽었습니다(마 27:5). 그가 죽기 전에 행한 것은 은 삼십세겔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갖다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마음에 큰 고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정도의 고통이 없었다면 스스로 자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무서움보다 죄의 고통이 더 컸던 것입니다.

가룟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줄곧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재정을 담당했을 정도로 예수님의 신임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렇게 가깝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저 마음은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예수님까지 팔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죄를 인식했을 땐 이미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가 죄로 고통을 받았을 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장 큰 행복을 누려야 할 자였지만 가장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는 죄의 포로였으며 죄는 그에게 행복 대신 고통을 주었습니다.

죄의 고백

넷째로 회개에는 죄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죄를 회개하기 위해선 반드시 죄에 대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서 신부에게 죄를 고백하여 용서받는 의식이 있습니다. 어찌 사람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의 고백을 들을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도 좋습니다. 교회 직분자에게 해도 좋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해도 좋습니다. 남편에게 해도 괜찮습니다. 아내에게 해도 좋습니다. 자녀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죄로 상처를 준 당사자에게 고백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어떤 상점에서 물건을 훔쳤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상점 주인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배우자 몰래 간음을 저질렀다면 배우자에게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사기를 쳤다면 사기 당한 장본인을 찾아 가십시오. 거짓말을 했다면 거짓말로 상처를 당한 당사자를 찾아 가십시오. 부당하게 물건값을 높게 받았다면 소비자를 찾아가 죄를 고백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회개가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민 5:7)라고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잠언 28장 13절에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나타나 회개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마 3:6)았습니다.

사도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요일 1:9)라고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약 5:16)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죄 지은 사람에게 달려 가십시오. 먼 곳에 있다면 전화기를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지은 죄를 고백하십시오. 죄를 숨기는 자에겐 형통함이 없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죄의 보상

넷째로 회개에는 보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죄는 하나님께 보상하십시오.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면 더 많은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더 많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충성을 다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자신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십계명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 값은 자녀 삼 사대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죄의 보상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출 20:5)

사람에 대한 죄는 사람에게 보상하십시오. 물건을 훔쳤다면 물건을 돌려주거나 물건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간음을 했다면 간음에 상당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 감옥에 간다면 가십시오. 그것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한다면 집을 파십시오. 죄와 함께 사는 집보다 죄 없이 사는 길바닥이 더 좋은 것입니다. 남을 속였다면 속인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근무시간을 어겼으면 어긴 시간만큼 일을 더 하십시오.

모세 율법은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온전히 갚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보상'은 원래의 것에 1/5을 더해서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 값을 온전히 갚되 오분지 일을 더하여 그가 죄를 얻었던 그 본주에게 돌려 줄 것이요"(민 5:7)

보상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원리는 가해자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의 것 다섯을 취했다면 다섯만 요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섯에다가 다른 손해배상까지 합쳐서 열 개를 취해서는 안됩니다. 지나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기에 모세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데운 것은 데움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찌니라"(출 21:23-25)고 명령한 것입니다.

죄의 용서받음

다섯째로 회개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십시오. 용서받기 전에는 온전한 회개가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한 대표적인 예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인식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 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시 51:4)고 말했습니다. 물론 시편 51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한 대상은 밧세바와 그 남편 우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다윗의 죄를 들춰냈을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삼하 12:13)

분명히 나단은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윗왕을 질책했습니다. 선지자로서 그 소임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의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모두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사람에게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사람에게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내 행거친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질책하기 위해서 찾아온 나단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죄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울의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지만 사울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람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삼상 15:24-25)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 큰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보기에 좋은 것은 취하고 필요치 않은 것들만 진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사울은 자신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에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라고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사울이 선지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이 용서를 바랄 때 하나님은 즉시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롬 4:8)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죄에서 떠나 스스로 뉘우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당신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였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찌라"(대하 7:14)

혹 당신이 사람에게 죄를 지었다면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할 때까지 보상하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할 때 비로소 당신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잘못 때문에 불만에 떨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으니 요셉이 벌을 주면 마땅히 그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조차 요셉이 형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을 것을 염려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야곱은 마지막 유언에 요셉에게 용서할 것을 당부했다고 형들이 고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찌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였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창 50:17)

형들의 그런 태도에 요셉이 울음을 터트렸던 것입니다. 이미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는데 아직까지 형들은 요셉의 용서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진실되이 용서했던 사람입니다. 요셉

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닮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십니까? 우리의 용서가 마땅히 요셉의 것과 같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하루 일곱번이라도 네게 죄를 얻고 일곱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눅 17:4)고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와서 진심으로 회개하면 그 죄가 몇 번이든 어떠한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이렇게 용서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먼저 형제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까?

죄를 버림

여섯째로 회개에는 죄를 버림이 필요합니다. 지은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다면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에는 죄의 반복이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는 똑 같은 죄를 다시금 짓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회개를 외쳤을 때 백성들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회개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저들의 이방아내와 그 사이에서 난 자식들을 내다 쫓아 낼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회 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 이다"(스 10:11-12)

나는 성경에서 이처럼 확실하게 죄를 버렸던 기록을 읽으면서 내심 놀랐습니다.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아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부인을 내 쫓겨칠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9.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에서도 더욱 풍성한 헌금을 넘치도록 하였습니다(고후 8:1-2).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자들까지 도왔습니다. 나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기뻐하며 극심한 가난에서도 오히려 더욱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

[고후 8:1]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고후 8:2]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게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의 어떠한 면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당신은 극심한 가난 중에서 오히려 풍성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열심으로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 함께 나눠 봅시다.

10.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믿음과 말과 지식과 사랑한다는 말로만 행하지 말고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함으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해 보이라고 말했습니다(고후 8:7-8). 믿음과 말과 지식과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행함과 진실함이 없을 땐 그 가치가 떨어질 것입니다. 나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사랑하는 마음만 있을 뿐 삶 가운데 행함과 진실함은 전혀 없지는 않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말과 혀보다는 행함과 진실함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되돌아 보면서 말과 혀가 많은지 아니면 행함과 진실함이 더 많은지 살펴 봅시다.

11.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부요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고후 8:7]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후 8:8]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입니다(고후 8:9). 우리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부요해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부요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부요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 때문입니까? 당신은 이 세상에서 주님을 통해 부요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12. 하나님은 오직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는 헌금을 받으십니다(고후 8:12). 하나님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려지지 않는 헌금은 전혀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만일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은 어떤 헌금을 받으십니까? 당신은 어떠한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13. 바울은 예루살렘교회의 성도들을 돕기 위

[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8:12]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한 헌금을 예루살렘교회로 보낼 때에 각별히 주의하였습니다(고후 8:20-21). 사역자는 헌금으로 인해 성도들로부터 의심을 사지 않도록 각별히 깨끗함과 정직함을 다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해 성도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왜 바울은 예루살렘교회에 헌금을 보낼 때 각별히 비방 받지 않도록 주의하였을까요? 당신의 교회는 헌금에 대한 성도의 비방을 받고 있습니까? 왜 교회는 헌금에 대해 성도들의 비방을 받는 것일까요? 헌금 사용에 대한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14. 성경은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였습니다(고후 9:6). 하나님께 적게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적은 것을 받고 하나님께 많이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많이 심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심은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어떻게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당신은 하나님께 많

[고후 8:20]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로 인하여 아무도 우리를 횡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고후 8:21] 이는 우리가 주 앞에 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고후 9:6]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라

이 심음으로써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까?

15. 하나님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며 오직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고후 9:7).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드려야 할 것입니다. 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떠한 자세로 해야 합니까? 당신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있습니까? 왜 헌금할 때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워 해야 하는 것일까요?

16.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고후 10:3-5).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쇄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보다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다 강력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한 역사가 있습니까? 당신은 육신의 능력이 아닌 하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고후 10:3]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고후 10:4]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고후 10:5]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17.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칭찬하는 자가 옳다 인정함을 받습니다(고후 10:18). 우리는 스스로 옳다 인정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스스로 옳다 인정하기 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옳다 인정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어떤 사람이 진정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일까요? 당신은 지금껏 스스로 옳다 인정하였던 자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것을 바라며 살았습니까?

18.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께 정결한 처녀로 중매하였습니다(고후 11:2).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고후 10:18]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고후 11: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그리스도께 어떤 관계로 연결하길 원하였습니까? 당신은 주님의 신부임을 믿습니까? 당신은 남편되신 주님께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19. 거룩한 신부는 남편되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고후 11:3). 마귀는 우리에게 다른 예수를 전하며 이전에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이전에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나는 항상 남편되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부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 무엇으로부터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까?

20. 사탄은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고후 11:14). 그래서 우리는 사탄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비로소 광명한 천사를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정

[고후 11:3]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케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후 11:14]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체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사탄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까? 왜 우리는 사탄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혹 당신 주변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은 누구입니까?

21.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짓말 하지 않는 것을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고후 11:30).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가 진정 정직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신다고 고백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22.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세 번 간구하였습니다(고후 12:7-9).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라고 말하시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울

[고후 11:30]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후 12: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후 12:8]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고후 12:9] 내게 이르시기를 내

처럼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좀처럼 하나님의 무응답을 받습니다. 나는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있을 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습니까? 당신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외면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일 당신이 현재 처한 환경 가운데 만족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 반원들께 나눠 봅시다.

23.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라고 말했습니다(고후 12:10). 이는 약할 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스스로 약해질 때 오히려 더욱 강해짐을 느낍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 오히려 기뻐했습니까? 당신은 바울의 당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약할 때 강해진다"는 바울의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대화를 나눠 봅시다

24.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후 12:10]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 때에 곧 강함이니라

은 재물이 아니라 성도들이었습니다(고후 12:14-15). 이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해 재물을 저축하는 것처럼 바울의 마음도 그러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된 도리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된 도리를 가지고서 사랑을 베풀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누군가를 향하여 아버지된 마음으로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로 고백해 봅시다.

25.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방문할 때에 교회 내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과 회개하지 아니함이 있을까 두려워했습니다(고후 12:20-21). 나는 교회 내에 그런 좋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다시 방문할 때에 어떤 것을 볼까 두려워했습니까? 당신은 바울처럼 교회 내에 좋지 않는 것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은 언제 생기는 것일까요?

[고후 12:14]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고후 12:15]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고후 12:20]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후 12:21]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26. 바울은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라고 권하였습니다(고후 13:5). 만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그룹제안) 바울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 시험하라고 하였습니까? 왜 바울은 만일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였을까요? 당신은 예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당신 믿음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습니까?

27.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온전해지기를 원했습니다(고후 13:9). 온전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할 때 하나님아버지의 도우심으로 강해지셨듯이 우리 또한 약할 때 예수님을 통해 강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 강해지는 것이 곧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할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온전케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후 13:5]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려진 자니라

[고후 13:9]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 (그룹제안)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처럼 온전해 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국제신학교

World Spiritual Leadership Seminary

“이런 분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 ▶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성과 신학을 겸비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영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강력한 기도의 용사가 되어 기도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각종 성령의 은사(대언예언, 신유은사, 영분별, 방언통변 등)를 통해 강력한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은 분!
- ▶ 목회자의 소명이 있으나 생활책임을 위해 불가불 여가시간으로 신학교를 다니고 싶은 분!

신학생 모집요강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사역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 목회학석사과정

- 인원: 00명
- 접수: 온라인 접수
- 자격: 대학교 졸업자
(연령, 교단, 성별 제한 없음)
- 시험: 면접에 의해 입학허가를 받음

“국제신학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신학에서 인준한 신학교로서 목회학석사 졸업자는 강도시교회를 거쳐 목사안수를 받습니다.

“국제신학교는 1년 4학기인 운영되고 있으며 신학생의 능력에 따라 조기 졸업이 가능합니다.

“국제신학교는 수시 입학이 가능하며 국제성경연구원 회원에 한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www.wslseminary.org(한국어배전 있음)

● 문의: 손에스터목사(010-3909-8844)

● 접수처: www.wslseminary.org/apply_kor.html

● 이메일: mail@wslseminary.org